

중국출장 결과보고(중국 사천성)

보고자: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박경철 책임연구원

I. 출장 개요

1. 출장기간: 2019년 10월 14일(월) - 18일(금) (3박5일)
2. 출 장 국: 중국 사천성(쓰촨성) 성도시(청두시)
3. 출 장 자: 박경철 책임연구원
4. 출장 목적
 - 2019 쓰촨 국제 우호도시 3농포럼 참석 및 발표
 - 발표 주제: 한국 지방정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현황 및 과제
 - 3농혁신정책 등 충남도 주요 농정 성과 홍보
 - 충청남도-사천성 간 농업·농촌 분야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천성 주요 경제산업시설, 문화관광지, 생태자연보호구역 시찰
5. 출장 경위
 - 충청남도와 사천성은 2018년 8월 21일 충남도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방정부 간 경제, 무역, 농업, 과학기술, 환경보호, 문화, 교육, 체육, 위생, 인재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강화를 약속함.
 - 충남도는 사천성 정부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충남도가 2015년도에 시작한 <동아시아지방 정부 3농포럼>과 관련해 2019년 사천성 개최를 제의한 결과 사천성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에 <사천 국제 우호도시 협력 발전 포럼>의 일환으로 “3농포럼”을 개최함.
 - 따라서 충남도는 이번 포럼에 3농정책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방문단을 구성하면서 본 연구자를 이번 <사천성 국제우호도시 3농포럼>에 발표자로 동행할 것을 요청해와 이번 사천성 행사에 참석하게 됨.

6. 주요 일정(충남도청 방문단과 일정 동일)

구 분	시 간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출국 【10.14】	14:00~16:30		· 공주 → 인천공항(개별 출발)	
	20:00~24:00	240'	· 인천공항 → 성도공항(쓰촨성)	아시아나
	24:00~ 01:00	60'	· 공항 이동, 호텔 체크인	
[2일차] 【10.15】 포럼운영	07:00~09:00		· 조식	
	09:00~09:50	40'	· 개 막 식	
	09:00~09:01	1'	· 개회 선언	기념행사 참석
	09:01~09:05	4'	· 참석자 소개(참가 지방정부 대표 등)	
	09:05~09:12	7'	· 환영사	
	09:12~09:40	28'	· 축 사	
	09:40~09:50	10'	· 우호도시 사진전 관람	
	09:50~10:00	10'	· 단체사진 촬영	
	10:00~12:00	120'	· 국제우호도시 성장, 도지사 포럼(토론)	
	12:00		· 포럼 폐막	
	12:00~14:30	150'	· 오찬 및 전시물 관람	
	14:30~18:00	210'	· 5개분야 세션별 포럼 운영	포럼참석 4세션 주제발표
			[1세션] 투자 및 경제무역	
[2세션] 문화관광				
[3세션] 환경보호 및 물류				
[4세션] 2019 쓰촨 국제 우호도시 3농포럼				
[5세션] 과학기술혁신 및 교육				
18:00~18:30	90'	· 휴식		
18:30~20:30	120'	· 환영만찬 - 쓰촨성 위원회, 쓰촨 문화특색 문예공연		
[3~4일차] 【10.16 ~17】 현장견학	09:00~18:00	2일 간	· 청두시 도시계획관, 텐푸신구 과학도시계획관, 사천성박물관, 두장옌, 청두 팬더곰연구기지 등	충남도 방문단 참가
10.17(목)			18:00~20:00	
[5일차] 입국 【10.18】	00:10~04:10	240'	· 대표단 귀국(성도 → 인천공항)	아시아나
	04:10~05:10	60'	· 인천도착 입국수속	
	05:10~08:10	180'	· 인천 → 공주	

II. 주요 활동 내용

1. <2019 “일대일로” 사천 국제우호도시 협력 및 발전 포럼> 개막식

○ 장소

- 사천성 성도시 금강(錦江)호텔 대회의장

○ 일시

- 10월 15일(화) 9:00-10:00

○ 행사 내용

- 사천성 성장 및 주석의 축사와 각국 지방정부 대표의 축사

○ 참석자

- 국내외 전체 약 400명

- 주요 참석자(축사자)

: 사천성 인리(尹力) 성장, 평칭화(彭淸華) 주석, 중국인민우호협회 시에위안(謝元), 일본 야마나시 若林一紀 부지사, 러시아, 네발, 미국, 브라질 등 지방정부 부지사(부주장) 약 7명

○ 주요 발표 내용

- 사천성은 2년에 한 번 <사천 국제우호도시 협력 및 발전포럼>을 개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일대일로”를 포함한 포럼을 개최함. 그 이유는 사천성은 중국 일대일로의 거점이자 중심 지역이기 때문임. 특히 성도시(成都市)는 사천성 일대일로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도에서 출발하는 화물열차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운행되고 있음. 앞으로 여객열차까지 운행이 된다면 성도는 중국 내 일대일로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것임.
- 중국 대외우호협회가 설립된 지 60년을 맞고 있음. 중국은 현재 180개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는데 이 협회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많은 지방정부가 수교국의 도시들과 우호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사천성은 특히 1982년 미국의 워싱턴주와 우호도시 협정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 사천성은 중국에서도 문화, 역사, 경제, 과학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서부개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음. 중국은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아 전년 소강

(小康)사회 건설을 표방한 시진핑 주석은 대외 개방과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과 국제사회의 번영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지방정부 도시 간 우호 교류는 더욱 넓혀 나갈 전망이다.

- 지난 4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현재 150개 국가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개방형 경제를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함. 사천성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국제 간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대회 개막식



인리(尹力) 사천성 성장 축하



핑칭화(彭清华) 사천성 주석 축하



미국 유타주 부주지사 축하

[그림 1] 대회 개막식

2. <2019 “일대일로” 사천 국제우호도시 합작 및 발전 포럼> 국제우호도시성장(省長)·주장(州長)포럼

- 장소
 - 사천성 성도시 금강(錦江)호텔 대회의장
- 일시
 - 10월 15일(화) 10:10-12:00

○ 행사 내용

- 사천성 부성장과 각국 지방정부 대표들이 사천성과 각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및 협력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교류 및 협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

○ 참석자

- 국내외 전체 약 200명
- 주요 참석자 및 발표자: 각국 지방정부의 부지사, 부주지사, 부시장 등
: 중국(사천성), 태국2, 네덜란드, 러시아3, 네팔,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독일, 일본, 프랑스2, 브라질, 스페인2, 남아프리카, 체코, 폴란드, 파키스탄, 루마니아, 미얀마, 미국2, 오스트리아, 필리핀
- 특별 발표자
: 중공중앙대외연락부 당대세계연구센터 주임이자 “일대일로”국제싱크탱크협력연맹 이사회 비서장 진신, 사천성 인민정부 성장 리원저(《국제우호도시 협력 및 발전 사천 선언문》 낭독),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시에위안(마무리 발표)



[그림 2] 사천성 국제우호도시 성장(省長)·주장(州長) 포럼

○ 주요 발표 내용

- 각국 우호도시 대표자들은 그간 중국 및 사천성과의 교류 및 협력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함.
- 네팔 발표자의 경우, 올해 시진핑 주석의 네팔 방문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네팔정부는 성도에 영사관을 개설함.
- 사천성 성도는 네덜란드까지 운행하는 화물열차를 개통함으로써 중약제, 전자 및 아이티제품 수출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 유럽으로부터도 와인 등 농산물 가공품을 많이 들여오고 있음.
- 현재 사천성 성도는 전 세계 88개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도시와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국제우호도시 협력 및 발전 사천 선언문》 내용

1. 세계 각국에서 온 사천 국제우호도시 대표는 2019년 10월 15일 사천 성도에서 사천성 인민정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개최한 2019 “일대일로” 사천국제우호도시 협력 및 발전 포럼에 참석한다.
2. 본 포럼은 “개방협력, 호혜윈윈”을 주제로 국제우호도시 성, 주(도지사)장 포럼 및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혁신, 농업과 농촌, 무역과 물류, 문화와 관광 등 전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호관계 증진, 폭넓은 공감대 형성, 실질협력의 목적 달성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3. 국제우호도시 간 왕래는 국가 외교의 주요한 구성 부분이고 또한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한다. 마땅히 “상호존중, 평등생활, 신뢰포용, 호혜협력”이라는 원칙하에 지역 간 우호관계를 폭넓게 구축하고 공동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일대일로”라는 중국 이니셔티브는 또한 대다수 국가의 공동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일대일로”건설에 충분히 참여하고 “공동협의, 공동구축, 함께 누림”이라는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교류시스템과 더 많은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변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호도시 간 베치마킹을 강화하고 윈윈발전을 이룩하길 희망한다.

3. 2. <2019 “일대일로” 사천 국제우호도시 합작 및 발전 포럼> 3농포럼

○ 장소

- 사천성 성도시 신화빈관(新華賓館)회의센터

○ 일시

- 10월 15일(화) 14:30-17:00

○ 행사 내용

- 각국 지방정부 대표자들이 자기 지역의 농업·농촌의 현황과 대표적인 농업·농촌 정책들을 소개함

○ 참석자 및 발표자

- 약 300명
- 주요 참석자 및 발표자: 각국 지방정부의 대표, 농정 담당자 등
: 사천성 인민정부 부성장 楊洪波, 사천성 농업농촌청 청장 楊秀彬, 프랑스 오스타니아주 미셸 가리그 부주장, 일본 야마나시현 若林一紀 부지사, 미국 워싱턴주 샤론 부론 참의원, 중국 농업농촌부 경제발전연구센터 宋洪遠 주임, 일본 야마나시현 농정부 土屋重文 이사, 사천성사회과학원 郭曉鳴 전 부원장

○ 특별 좌담

- 주제: “일대일로” 국제우호도시 “3농”합작 발전 추진
- 참석자: 중국 서남재경대학 중국서부경제연구센터 賈晉 부주임(사회), 스페인 카스틸라 라만차주 농업·수자원·농촌개발부 프란시스코 마틴네즈 부장, 충칭남도 조일교 팀장¹⁾, 성도시 청백강구 張彬 부구청장, 신희망유화남방구 張義奎 행정감독

○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사천성은 천혜의 땅으로 비옥한 농토와 차마고도를 가지고 있음.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촌진흥 정책을 사천성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빈곤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특히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농

1) 발표 형식이 토론회를 바꾸면서 본 출장자 발표 내용(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추진 현황)은 충남도 조일교 팀장이 병합 설명함.

산물 가공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오스타니는 프랑스 내에서 유기농업 생산량이 1위일 정도로 유기농업이 특히 발전되어 있으며 포도주 생산이 많음.
- 일본 야마나시현은 배, 포도주로 유명함. 야마나시현은 일본 내 포도주를 처음 생산한 곳으로 이와 관련한 시설들이 많아 일본에서는 포도주관광으로 유명함.
- 스페인 만차지역은 포도주주산지로 산동성 청도에서 개최한 청도포도주박람회에도 참가한 적이 있음. 또한 만차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마늘과 올리브가 유명함. 성도와 마드리드 간 항공편도 운항되고 있어 앞으로 국가 간 무역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사천성 청백강구(靑白江區)는 원래 노후공업도시였으나 2013년 유럽 간 화물열차가 개통되면서 지금은 일대일로를 잇는 내륙 개방도시, 통상항공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성도-유럽 간 화물열차 운행을 통해 농산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청백강구는 개방형 농산업을 발전하고 있음. 사천성 내 50대 농업기업 가운데 35개가 청백강구에 위치하고 있음. 향후 국제적 기준에 맞춰 통관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청백강구를 사천성 농업교류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임.



사천성정부 양홍보 부성장 축사



사천성 농업농촌청장 발표



3농 토크좌담회



충남도 대표단

[그림 3] 사천성 국제우호도시 3농포럼

- 충남도는 2011년부터 3농혁신정책을 시작했고 2015년에 처음으로 동아시아3농포럼을 개최함. 충남도 3농혁신은 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세우고 이를 통해 생산혁신, 유통혁신, 도농혁신, 마을혁신, 인력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감.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인 소농,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는 15만 농가에 소득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임.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며 향후 확대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또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충남도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재 농정예산 혁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충남도 조일교 팀장이 토크좌담 시 발표한 주요 내용, 본 출장자의 발표 내용까지 포함해 병함 발표함)

4. 현지 시찰 내용

① 사천성 성도시도시발전계획관 및 천부(天府)신구

○ 일시

- 10월 16일 오전/오후

○ 주요 참관 내용

- 사천성 성도시도시발전계획관은 성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부터 현대, 그리고 미래까지 성도시의 도시 발전 과정과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관임.
- 전시관 안에는 고대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당, 명, 청, 건국시기, 그리고 오늘날 사천성 최대 도시로 발전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게 전시되어 있음.
- 사천성 성도시는 새로운 발전 이념의 전면적 실행이라는 목표 하에 국가중심 도시, 세계적 명성의 문화 도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원 도시, 국제 게이트웨이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성도시는 중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문화적 소양도 높고 음식도 다양해 중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가운데 매번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성도시 천부신구는 성도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서부지역 일로일로 실현을 위한 핵심거점 도시임. 여기에는 주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연구와 개발, 금융, 교육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미래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와 IT, AI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임.

- 천부신구는 2018년 2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곳을 직접 방문할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천성정부와 성도시에서도 천부신구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음.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을 얼마나 의지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성도시 도시발전계획관



성도시의 전체 조감도(조형물)



천부(天府)신구 시진핑 주석 방문 기념 어록 표지판



천부신구 전경



천부신구 미래 조감도

성도시와 유럽 간 철도 연결도

[그림 3] 성도시 도시발전계획관 및 천부(天府)신구

② 도강언(都江堰)과 팬더공원

○ 일시

- 10월 17일 오전/오후

○ 주요 참관 내용

- 사천성 성도시에 위치한 도강언은 고대수리시설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임. 이곳은 현재 중국 국가급 5A관광지로 등록되어 있음.
- 도강언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촉군(蜀郡)의 태수 이빙(李冰)과 그의 아들 이랑(二郎)이 기원전 306~251년에 건설한 수리시설로서 청두 시내에서 버스로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이 시설이 옛부터 민장강[岷江]의 범람으로 일어나는 홍수를 막아 주어 청두 사람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하며, 오늘날에도 이 일대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부근에는 촉나라 이씨 부자를 기리는 사당인 '이왕묘'가 있다.(출처: 두산백과)
- 도강언은 북서부의 고원에서 흘러들어온 하나의 물줄기를 두 개로 나누고 그곳에 댐과 같은 도강언을 건설해 홍수 등을 방지해 오늘날의 성도시를 있게 함.
- 고대의 수리시설이지만 그 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풍광도 수려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음. 본 시찰단이 현지 방문 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북적였음.
- 도강언 팬더공원은 사천성 내 7개의 팬더공원 중에 하나임. 공원의 크기에 비해 팬더는 많지 않으나 조용히 산책하며 팬더를 볼 수 있는 곳임.



도강언의 북쪽 전경



도강언의 새부리모양의 뚝



도강언 팬더공원



도강언 팬더공원의 팬더 모습

[그림 4] 도강언과 팬더공원

Ⅲ. 전체 평가 및 과제

1. 이번 2019 “일대일로” 사천 국제우호도시 합작 및 발전 포럼에는 32개국 48개 도시가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으며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던 포럼이었음. 사천성 성장과 주석이 참석한 개막식, 48개 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성장·주장 포럼, 3농포럼을 비롯한 5가지 주제와 관련한 포럼, 그리고 현장 시찰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주도면밀한 행사진행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2. 특히 사천성과 성도시는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도시이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지방외교를 통한 대외 개방과 포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천부(天府)신구와 같은 하드웨어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중심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미래전략을 엿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3. 이번 포럼 가운데 3농포럼은 사천성 인리 성장이 충남도에 방문했을 때 충남도 양승조 지사가 제안해 개최된 포럼임.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당초 지사 또는 부지사급을 단장으로 20여 명의 대표단이 사천성에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대폭 축소되어 충남도 농정과 공무원 2명과 본 출장자 등 3명만 방문하게 되어 무척 아쉬운 출장이었음. 또한 3농포럼에서 당초 조일교 팀장과 본 출장자가 각기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주최측이 행사 진행방식을 토크좌담 형식으로 바꾸고 시간도 제한적이어서 충남도 농정사례를 충분히 발표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음.
4. 내년에는 중국 길림성에서 3농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함. 충남도에서 시작된 동아시아3농포럼이 이번 사천성 개최에서는 국제우호도시포럼의 일부분으로 개최되어 기존의 포럼 형태에서 많이 후퇴한 형식이 됨. 향후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3농포럼이 온전한 포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에서도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